

# 양희영 “크라머를 잡아라”

### US女오픈 3R 선두에 5타차 뒤진 공동 4위 신지에·최나연 공동 11위...위성미 컷 탈락

양희영(21·삼성전자)이 제65회 US여자 오픈 골프대회에서 힘겨운 추격전을 예고했다.

양희영은 1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오크먼트의 오크먼트 골프장(파71.6613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 15번홀까지 중간합계 1오버파를 치고 일몰로 인해 다음날로 경기를 미뤘다. 전날 쪽으로 경기가 순연되면서 2,3라운드를 연속해서 치른 양희영은 13번홀까지 1언더파를 적어낸 미국의 희망 풀라 크라머에 5타 뒤진 공동 4위에 자리했다.

양희영은 2008년 12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켈리파인스를 통해 데뷔한 뒤 아직까지 우승이 없었던 17세였던 2006

년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ANZ레이디스마스터스를 제패해 깜짝 스타로 떠올랐고 2년 뒤 독일여자오픈에서도 우승하며 차세대 주역으로 자리매김한 선수다.

양희영은 1라운드에서 1언더파 70타를 치며 상위권에 올랐다가 2라운드에서는 4타를 잃고 중위권으로 밀렸다. 하지만 양희영은 3라운드 15번홀까지 버디 2개를 보기에 2개로 맞바꾸며 타수를 지켜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의 가능성을 남겼다.

제도약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크라머는 1라운드 1오버파 72타, 2라운드 1언더파 70타를 기록했다. 3라운드 17번홀까지 마친 2위 웬디 워드(미국)와는 3타차, 14번홀까지 마친 장타자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에 4

타차로 앞섰다.

양희영은 크라머에 6타차로 뒤져 있지만 타수를 줄이는 경쟁이 아닌 타수를 지키는 경쟁이 돼버린 이번 대회에서 역전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양희영이 12일 21개홀을 돌아야 하는 반면 크라머는 23개홀을 치러야 한다. 장정(30·기업은행)도 3라운드 17번홀까지 5오버파를 기록했고 16번홀까지 마친 김인경(22·하나금융)도 5오버파로 공동 7위에 자리했다.

신지에(22·미래에셋)는 2라운드에서 1언더파 70타를 쳐 상위권으로 뛰어 올랐지만 3라운드에서 1타를 잃고 최나연(23·SK텔레콤)등과 함께 공동 11위(6오버파 219타)로 대회 셋째날을 마쳤다.

위성미(21·나이키골프)는 1,2라운드 합계 16오버파 158타의 부진한 성적으로 컷 탈락했다. 1998년 우승자 박세리(33)는 13오버파 155타로 컷 탈락했지만 2009년 우승자 지은희(24)는 10오버파 152타로 3라운드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매서운 공격

11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0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여자 플뢰레 단체전 결승에서 한국의 전희숙(왼쪽)이 일본의 니시오카를 향해 매서운 공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환·김애경 남녀단식 우승

NH농협 2010광주국제정구

박환(수원시체육회)과 김애경(농협중앙회)이 NH농협 2010광주국제정구대회 남녀 단식 정상에 올랐다.

박환은 11일 광주 염주코트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단식 결승에서 이연(이천시청)을 4-2로 물리쳐 우승했다.

여자단식 결승에서는 김애경이 자오린(중국)을 역시 4-2로 제압했다. 김애경은 주옥(농협중앙회)과 함께 출전한 복식에서도 김경련(안성시청)·박순정(수원시청)을 5-3으로 꺾고 우승해 2관왕이 됐다.

남자복식 결승에서는 이원화·김종윤(이상 달성군청)이 김재복·김주권(이상 문경시청)에 5-2 승리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는 13개 나라에서 250여 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한국 '12전 전패' 충격

한국 배구가 2010 월드컵 국제남자배구대회에서 12전 전패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대표팀은 10일(한국시간) 네덜란드에 1-3으로 패해 브라질, 불가리아, 네덜란드에 단 한 번도 못 이겨보고 대회를 마감했다.

더군다나 폴세트까지만 가도 승점 1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던 이번 대회에서 참가 16개국 중 유일하게 승점 0점이라는 굴욕을 맛봤다.

2008년에는 1승이라고 평가 체면을 유지했고 작년에는 3승이나 거두며 가능성을 보였다가 올해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

'높이·조직력' 한계 절감

프로배구 정규 시즌이 길어지면서 애초 베스트 멤버를 꾸리지 못한 계 부진의 결정적인 이유이나 한국 특유의 조직력과 투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라이트 공격수 박철우(삼성화재)를 비롯해 이선규, 윤봉우, 하경민, 이경수 등이 불참했고 생모 노릇을 한 문성민(현대캐피탈)과 김요한의 컨디션도 정상이 아니었다.

"이번 대회보다 11월 광주 아시아안개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하는 게 주된 목표"라고 밝힌 신치용 대표팀 감독은 "높이와 힘의 한계를 절감했다. 남은 기간 서브 리시브와 수비를 더욱 혹독하게 훈련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 스트리커 54홀 최저타 신기록

스티브 스트리커(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존디어 클래식에서 54홀 최저타 기록을 새로 썼다. 세계랭킹 4위이자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스트리커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실비스의 디어런 TPC(파71·7257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9개를 뽑아내며 9언더파 62타를 쳤다.

대회 첫날에도 11언더파 60타를 쳤던 스트리커는 같은 날 '59타'라는 경이적인 스코

어를 낼 뿐 고이도스(미국)의 빛에 가렸다. 하지만 연일 팽타를 휘두른 스트리커는 중간합계 25언더파 188타로 1위를 기록하며 존 록과 마크 켈커베키아, 토미 아머 3세(이상 미국)가 갖고 있던 종전 기록 189타를 깨뜨렸다.

죽은 1996년 세인트 주드 클래식에서, 켈커베키아는 2001년 피닉스오픈, 아머는 2003년 텍사스 오픈에서 각각 54홀 189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PGA존디어클래식 1위 질주

위창수는 중간합계 공동 7위

스트리커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65타를 치며 아머가 보유하고 있는 72홀 최저타 기록(254타)도 갈아치울 수 있다.

위창수(38·테일러메이드)는 3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를 곁들여 5언더파 66타를 쳐 중간합계 12언더파 201타로 공동 7위에 올랐다.

'미스터 59' 고이도스와 제프 매거트(미국)가 공동 2위(19언더파 194타)에서 추격했다. /연합뉴스

## 지동원 동점골...전남, 포항과 1-1 비겨

### 프로축구 K-리그 13R

전남 드래곤즈가 포항 스틸러스와의 후반 기 첫대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남은 10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2010 K-리그 13라운드 포항과의 경기에서 지동원의 동점골로 1-1 무승부를 거두고 승점 1점을 추가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돌아온 포항 설기현은 데뷔전에 나섰다.

태클로 한 차례 경고를 받았던 전남 이승희와 포항 박희철이 전반 막판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 당하는 등 공방이 치열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후반 11분 포항이 선취점을 기록했다. 국가대표 수비수 김형일이 이진호의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뽑아냈다.

곧바로 전남의 반격이 이뤄졌다. 후반 14분 지동원이 슈바가 찰라준 공을 받아 오른 발을 날리며 포항의 골문을 갈랐다. 양팀은 이후 추가득점에 실패하면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지난 1월 한국무대로 복귀한 설기현은 무릎 수술 후 처음 K-리그 무대에 올랐다. 왼쪽 미드필더로 출전한 설기현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후반 16분 조찬호와 교체됐다. /연합뉴스

## 게이, 파월 꺾고 우승

브리티시 그랑프리 100m

남자 육상 100m·200m 전 세계 챔피언 타이슨 게이(28·미국)가 라이벌 아사파 파월(28·자메이카)을 꺾고 시즌 첫 100m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게이는 11일(한국시간) 영국 뉴캐슬 게이 초헤드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 다이아몬드리그 8번째 대회인 브리티시 그랑프리 100m 결승에서 9초94를 기록, 파월(9초96)을 0.02초 차로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지난해 9월 기록한 자신의 최고 성적(9초69)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지만, 게이는 7주 동안 이어졌던 허벅지 부상을 딛고 첫 출전한 100m 레이스에서 9초대를 찍으며 부활에 나섰다. /연합뉴스

## 야펜싱 한국 여자 플뢰레 2연패

### 전남도청 모효정 여 사브르 銅

한국 펜싱 여자 플뢰레 대표팀이 2010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정상을 재확인했다.

한국은 11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플뢰레 단체전에서 한 수 아래의 일본을 45-18로 완파했다.

한국은 이로써 작년 카타르 도하 아시아선수권에 이어 대회 2연패를 이뤘다. 한국은 여자 플뢰레는 특히 오는 11월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전조전 형식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저력을 과시하며 금메달 전망을 밝혔다. /연합뉴스

세계적 선수인 대표팀의 '쌍두마차' 남현희와 전희숙이 점수차를 벌리면서 초반부터 안정감 있게 경기를 풀어갔다. 한국은 전희숙이 1라운드에서 일본의 에이스 이케하타 가나이를 4-2로 따돌렸고 남현희는 2라운드에서 요시자와 치에에게 1점만 내주고 무려 6점을 끌러 10-3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국은 3라운드에 오하나도 니시오카 시호를 상대로 2점을 내주고 5점을 따내 15-5로 달아나 한 차례씩 맞대결이 돌았을 때 일찌감치 승리를 굳혔다.

이에 앞서 10일 벌어진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서는 김금화(28·익산시청)와 모효정(27·전남도청)이 나란히 동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주)제주무궁화관광**

6월1일~7월20일

#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한라산, 제주항공 - 제주항공편(1일) 1일 관광선 등반, 1일전편(1일) ₩89,000원

제주도, 한라산, 제주항공 편 다양한 여행상품을 특가로!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119,000원
제주도 여행 119,000원	제주도 여행 169,000원	제주도 여행 179,000원

문의: ☎064-744-1109 (주)제주무궁화관광

## 무등빌딩임대

· 지리적 입지조건  
· 광역적 접근성  
· 지하주차장  
· 신축 무등빌딩 건물  
· 최첨단 시설  
· 최상의 비즈니스 조건

문의: 02-222-0527

## 남성성기능강화제

성기능 강화제... 남성성기능강화제

02)2231-0533